

# 전북-강원 문화예술 협력교류 전시

### 9월 21일까지 하안양옥집서 강원도 작가 15명 참여 '강원도 작가들의 전북여행' 주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9월 21일까지 하안양옥집에서 아트아카이브(대표 조부경)와 공동기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특별교류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전시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특별자치도 간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앞서 재단은 지난 1월 전주시에 영월군 등이 참여해 '전북의 산하 그리고 영월'이라는 내용으로 전북자치도 출신의 홍성모 작가와 공동

기획 전시를 통해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을 지속하고자 재단에서는 강원자치도와 다시 한번 공동으로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이야기는 하안양옥집을 통해 '강원도 작가들의 전북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15명의 작가가 함께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각자의 작품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전북자치도에 소개할 기회로, 전북자치도민의 문화 향유의 영역 또한 넓힐 수 있는 전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시의 장소가 옛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운영 중인 하안양옥집에서 진행,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더욱 더 의미가 크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간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적으로 다채로운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재단 하안양옥집(063-230-423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개최

10월 12~13일 진행... 9월 11~13일 참가팀 이메일 접수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의 일환으로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가 개최된다.

'2024 부안 붉은노을축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축제 기간인 10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예선과 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이 참가하게 될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전 국민에게 부안이 보유한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부안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규모의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1차 동영상 심사를 진행해 25팀을 선발하고, 2차는 현장에서 예선과 결선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 발표곡이나 창작동요, 국악이나 양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가창자 1명(팀이 2곡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창과 중창 복수 참가도 가능하다.



2023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사진

1차 동영상 심사는 가창자가 피아노 반주나 MR을 사용해 직접 노래한 동영상으로 심사한다. 중창은 20명 이내에서 참가할 수 있고, 올동은 예선과 결선 심사에서만 반영하고, 예선과 결선 대회에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대회를 진행한다.

신청서는 부안붉은노을축제 홈페이지(www.부안붉은노을축제.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참가신청서, 악보, 가창 동영상 9월 11일부터 9월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foxant@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공모전 결과 발표

### 기념공모전 · 학생서예공모전 수상작품 10월 30일~11월 3일 전시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성인 대상 기념공모전과, 초·중·고 학생 대상 학생서예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74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결과 기념공모전에는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37점, 입선 120점 등 총 163점이, 학생서예공모전에는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10점, 동상 30점, 특선 290점, 입선 580점이 각각 선정됐다.

기념공모전 대상은 5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2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학생서예공모전 대상은 100만원, 금상 3명은 50만원, 은상 10명은 20만원, 동상 30명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

기념공모전 대상에는 은내 황지영(1984년생·경기) 한글작품 '가을의 기도'가 선정됐으며, 우수상 3점에는 심재 이경철(1972년생·울산) 예서작품 '우음(偶吟)'이, 동은 홍원화(1967년생·대전)의 문인화작품 '묵죽'이, 가연 이경화(1976년생·전주)의 작

품 '벽'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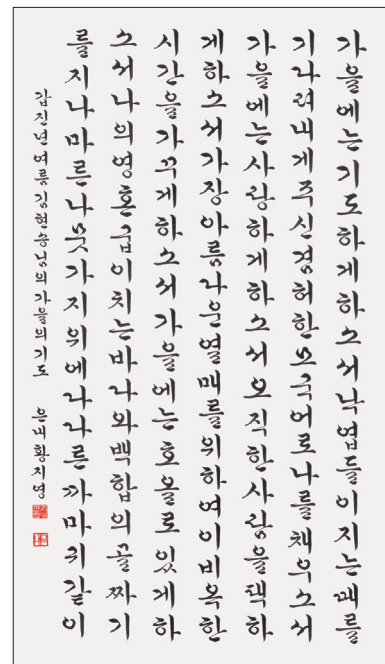
또 학생서예공모전에 대상은 초등부에서 선정됐다. 정자로 단아하게 쓴 한글서에 작품으로, 초등부 고학년 구단아(거제 삼통초 6년) 학생이 쓴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부 저학년 금상에는 류수현(고양 백송초 3년)학생이 쓴 한글 작품이, 중등부 금상에는 김승민(고양 대송중 2년)학생의 해서 작품이, 고등부 금상에는 임관후(군산 상일고 3년)학생이 해서로 쓴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자 명단은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념공모전과 학생서예공모전 수상작품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국서예 미래의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특히 한국 서예의 동양이자 미래의 서예가를 꿈꾸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념공모전 대상 작품

## 전북문화관광재단,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 재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인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견작가들의 활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중견작가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접수기간은 9월 6일까지며, 신청서 양식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내려 받아 이

메일(jbct202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20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에 있으며, 현재 도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창작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시각 분야의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견 예술인이다.

지원내용은 △작품제작비, △번역비, △프로필·작품 촬영비 등으로, 총 13명의 시각 분야 전업예술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영어로 듣는 국악동화 '숲속음악대 덩따콩'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국악의 매력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호주 시드니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영어로 듣는 국악동화 <숲속음악대 덩따콩>'의 해외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주시드니문화원 주최로 8월 14일 오전 10시, Latvian Hall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교육주관을 맞아 한국어를 배우는 6개 초등학교에서 약 20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초청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

이들은 국악동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8월 18일 오후 3시에는 주필리핀한국문화원 주최로 열린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205석이 매진되며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19일에는 주필리핀한국문화원 K-Studio에서 NARA전통공연단을 대상으로 진도아리랑 및 국악 장단 워크숍이 열렸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은 "전통 국악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을 확인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국악을 알리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판식 가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3일 전당 전주문화관에서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품길) 명패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우병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문화경제위원회 이상국 부위원장, 박해숙·김원주·이보순·신유정 의원의 전주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전당은 3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공모사업에 신청, 4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치는 등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기관

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전통문화 전담기관으로서 개관 이래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지와 한식, 한복, 전통놀이, 수공예 등의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앞장선 결과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전통문화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전통문화 진로체험으로 꿈을 꾸고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관풍각

#### 내아